



한국고분자학회
38대 회장 이준영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시는 활기차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76년 창립되어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고분자학회는 전임 회장님,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선후배 회원님 모두 함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셔서 고분자 관련 학문 및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해 온 한국에서 가장 자랑스런 학회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은 위상을 인정받는 학회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지속가능 인류사회를 위한 친환경 소재의 필요성 등 사회적 변화 및 요구에 따라 우리 학회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필요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과 미래가치 창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학회는 모든 회원님들께 국내외 산학연 학술 및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하여 회원님들의 교육, 연구개발 및 기업 활동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회 운영에 있어서는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여 “소통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고분자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는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이 더 긴밀해지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산업계 회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김양국 전임회장이 출연해 주신 재원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신 산업계 회원들의 노고에 대해 시상하는 학회상을 신설할 것이며, 우리 학회 산업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그런데,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이에 따라 우리 학회의 지속적인 변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은 언제 개선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양국 회장과 김승현 전무이사를 비롯한 2020년도 운영진은 정말 잘 대응해 오셨다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회의 많은 사업이 온라인 또는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록 온라인으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시스템을 개선, 보완하여 회원님들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로서 2020년 7월에 개최하기로 하였던 MACRO2020도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5월로 연기되어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됩니다. MACRO2020+ 조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성공적인 국제학술대회가 되어 우리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회의 발전은 소수의 운영진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회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열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지속적인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큰 혁신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호규 수석부회장, 학회 운영진과 함께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할 지라도 우리 학회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학회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 회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21년 1월 1일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이준영